

남녀성비불균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호주제 폐지하라” 여성계 한 목소리

대한여한의사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토론회 공동주최 ... 가족법 개정 및 제도개선 요구

“남아선호관을 부추기는 호주제도폐지,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평등노동, 고용안정, 가사와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확대, 여성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여성의 연금권 확보, 남성중심 가족문화 지양 및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 양성평등교육 실시, 성감별 의료 행위 즉각 중지, 성감별 의료인 처벌규정 강화, 성비불균형 심각성에 대한 대국민 캠페인 실시, 남아선호사상 부추기는 방송매체 규제, 여성에게 불리한 가족법과 제도 개선.”

이같은 내용은 지난달 29일 대한여한의사회(회장 장영희)와 한국여성단체연합회(상임대표 지은희)가 공동 주최하고 여성신문, 내일신문, 숙대 민주동우회, 이대 민주동우회, 계명대 대학원 여성학과, 이대 대학원 여성학과, 효성 카톨릭대 여성문제 연구소 후원으로 열린 ‘남녀성비불균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천명된 여성계 10대 과제이다.

토론을 준비한 대한여한의사회는 이후 ‘아들 낳는 약 처방 금지 및 호주제 폐지 운동’, 여연은 ‘제도화 의식개혁’ 사업을 후속 프로그램으로 기획하고 있다. 여성의료계와 여성운동단체가 성비불균형 해결에 적극 연대하고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2010년 약20% 신부 부족
한해 성감별 검사비 2백94억”

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회는 장영희 대한여한의사회

회장의 인사와 신낙균 국민의원의 축사에 이어 곧바로 진행됐다.

‘성비불균형의 최근동향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조남훈 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은 성비불균형이 사회적으로 야기하는 문제와 이러한 현상에 내재되어 있는 요인들을 밝혀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 부원장은 성비불균형의 사회적 문제로 초등학교에서 짝을 찾지 못한 남아의 인성형성에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과 이 문제의 연장선으로 보여지는 신부 부족현상 및 모성보건의 문제를 성비불균형의 사회적 문제로 지적했다.

조 부원장은 “2010년의 신랑감과 신부감의 성비는 123 수준이어서 신랑 123명중 약 20%가 신부 부족으로 결혼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 부원장은 “임신 9주경에 가능한 음모막 검사나 16주에 가능한 양수검사, 임신 20주에 가능한 초음파 검사는 모두 태아에 심각한 위험을 미칠 수 있는데다 이에 따른 인공 임신중절도 시기상으로 적합치 않아 각종 부작용이나 후유증으로 모성건강에 해를 줄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성감별 검사비용과 관련해 “실제로 태아의 성감별을 위한 의료행위 건수는 약 5만8천7백50건으로 추정되는 현실에서 검사비용을 건당 평균 50만원으로 과소 추정해도

에서 내놓은 대안에 따라 상당 부분 호주의 권리 의무 등이 없어졌을 뿐”이라며 “호주라는 말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억압과 구속, 지배의 감정 그리고 아들, 딸, 어머니, 며느리로 이어

걸쳐 혁명적인 조치들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광순 원장이 제시한 ‘혁명적 조치’는 호주제 철폐를 비롯해 한국여성이 외국인과 결혼했을 때 그 남성의 한국국적 취득을 허용하지 않는 국적법과 성이 같다는 이유로 동성동본 남녀 결혼을 금하는 금혼법, 아이를 낳으면 당연히 남편의 성을 따르도록 하는 민법 등의 개정이다. 고광순 원장은 아울러 “여성의 사회활동을 억압하는 법률과 제도 그 밖의 기타 남성중심의 가족문화, 사회문화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등의 새 토대를 구축하는 일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김명숙씨는 21세기에 맞는 새토대는 “호주제 철폐를 비롯해 여자가 ‘시집을 가는’ 부가입적제의 폐지와 엄마 성도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제도의 마련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명숙씨는 여성비하 사고와 차별관습의 개선 방안으로 “여성우선 지원제도가 정부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기관에서 유일하게 참석한 신상숙 보건복지부 생활보전과 사무관은 ‘보건복지사업을 통한 출생성비불균형 해소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보건복지부의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신 사무관은 특히 대국민 홍보를 위해 한국 방송광고공사에서 주관하는 ‘97공익광고’ 주제로 ‘남녀성비 불균형’을 선정토록 협의중이라고 밝혔으며 5월경 ‘출생성비불균형 해소’를 위한 주부토론회와 9월경 성문화연구소 공동주최의 공청회를 준비중이라고 소개했다. 이밖에 딸사랑캠페인과 여성지위향상을 주제로 한 이벤트 및 성문화연구소 공동의 ‘성인남녀 대상 성의식 조사연구’도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

‘남녀성비 불균형에 대한 여성계의 입장’을 발표한 양혜경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담당소 소장은 대응방안으로 “여성 스스로가 이 문제를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와 함께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여성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진숙기자>



대한여한의사협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이 1월 29일 공동주최한 ‘남녀성비불균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호주제 폐지’를 중요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한해 2백94억원이라는 의료비가 낭비된다”고 지적했다.

“가족법 개정 시급,
남성중심 가족문화 바뀌어야”

‘성비불균형과 호주제도’를 주제발표한 광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소장은 호주제 폐지와 여전히 남아 있는 가족법 내 불평등조항의 개정을 주장했다. 광 부소장은 “89년 3차 개정을 통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계가 바랬던 호주제도 폐지는 이뤄지지 않았고 법제사법위원회

지는 호주승계 순위가 그대로 조문에 있는 한 남녀 차별의 근간이 되는 남계혈통 중심의 가부장제는 여전히 우리나라 가족관계를 지배하는 지배 이데올로기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인이 본 남아선호관의 실태와 정부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주제로 토론에 참여한 고광순 홍명한의원 원장은 “의료인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 처벌만으로 정부가 성비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안일한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하고 “사회전반에

“여성의 열등한 지위,
남아선호사상 주범”

〈나쁜 여자가 성공한다〉의 저자 김명숙씨는 ‘성비불균형 초래하는 호주제도, 사회제도의 개혁방향’을 주제로 토론에 참가했다. 김명숙씨는 남아선호의 본질적 원인을 “가정과 사회에서의 여성의 열등한 지위”라며 “여성의 구시대적 현실이 국민의 구시대적 의식을 만든만큼 이러한 의식을 유지시키고 있는 낡은 토대를 시급히 허물고 21세기에 맞는 여남